

다그저 게업

HEIDELBERG

하이델베르그는 세계 최대의 인쇄 매체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24,5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 하이델베르그는 170여 개국에 이르는 인쇄산업 최대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170여개국에

40만대 이상 공급

하이델베르그 그룹의 '시조'는
밀러의 아들인 안드레아 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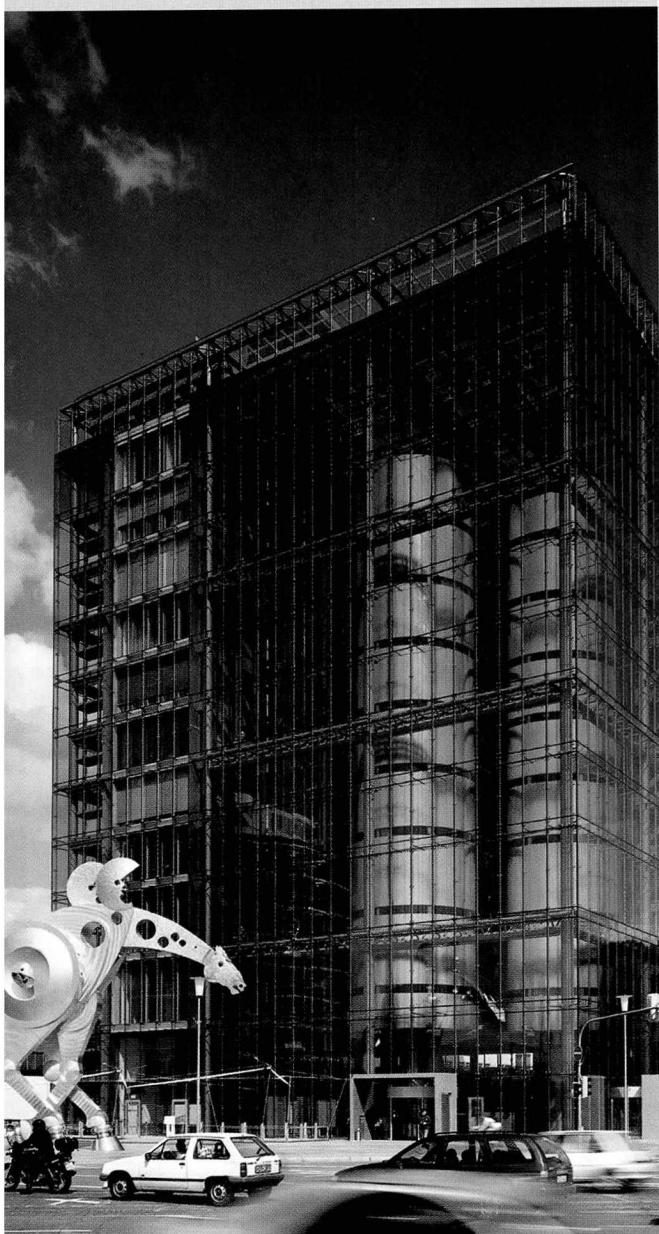
하이델베르그는 세계 최대의 인쇄 매체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24,5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4만 이상의 고객 사업장에 40만대 이상의 인쇄기가 설치되었으며, 하이델베르그는 170여 개국의 인쇄 매체 기술사용을 지원하는 인쇄산업에서 최대의 영업과 지원망을 가지고 있다. 하이델베르그는 인쇄업계에 디지털과 오프셋 인쇄 솔루션 모두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다. 또한 자체 주물공장 운영으로 모든 기계에 사용되는 철강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그룹의 '시조'는 밀러의 아들인 안드레아 햄으로 1850년, 프랑켄탈에 종 주조와 기계공장을 설립했다. 1856년 햄은 종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 제조자 안드레아 엘버트와 함께 주조와 자동 실린더 인쇄기 제작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안드레아 햄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인 칼 햄은 프랑켄탈에서 하이델베르그로 옮겨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 1905년에는 'Schnellpressenfabrik AG Heidelberg' 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다.

자동 매엽 급지시스템의 최초 시도에 이어, 첫번째 압반(Tiegel)인쇄기는 1914년 레이징(Leipzig)에 있는 부그라에서 선보이게 된다. 시간당 1,000장을 찍는 인쇄기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당시 보드맴버였던 허버트 스텐버그가 한 인쇄회사에서부터 다른 곳까지 라이브 전시를 위해 '오리지널 하이델베르그 티에겔'을 '전시차량' 위에 싣고 다닌 아이디어 때문만은 아니었다.

엄청나게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라인은 1926년에 들어서 월간 100대의 티에겔 인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인쇄 솔루션 공급

1929년, Schnellpressenfabrik과 Maschinenfabrik Geislingen의 합병으로 회사의 주요 생산능력이 증가되었다. 1935년 완전 자동 실린더 인쇄기(오리지널 하이델베르크 실린더)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티에겔 인쇄기에 이어서 이 레터프레스는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 제품 중 가장 성공적인 인쇄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수익 중 60%가 해외매출에 의한 것으로 2차대전의 발발로 생산 유지가 어려워졌다. 인쇄기는 전쟁 필수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은 줄어들게 되었고, 기술자들의 징병을 막기 위해서 회사는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군수품 주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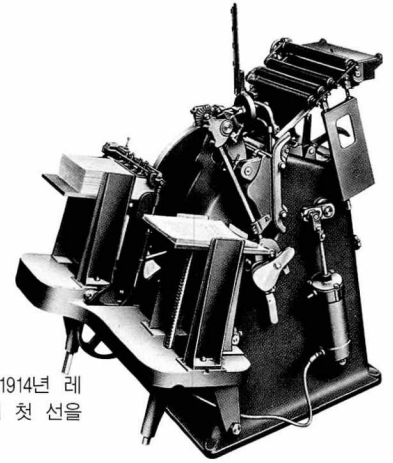
1957년 하이델베르크는 위슬로에 지점을 열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현대화된 공장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1959년까지 위슬로 공장에서 100,000대의 인쇄기를 출고하기도 했다. 레터프레스로부터 오프셋인쇄기로의 전환은 1962년에 이루어져, 비로소 오프셋인쇄기 제조를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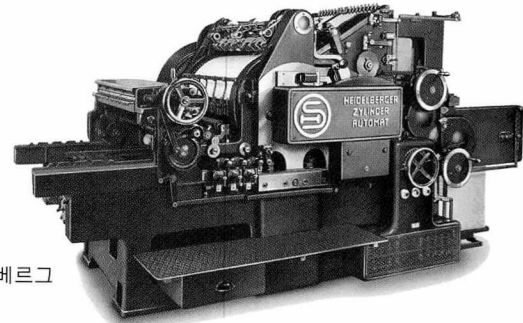
1967년 'Heidelberger Druckmaschinen Aktiengesellschaft'로 이름을 바꾸고 고객의 필요에 꼭 맞는 솔루션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설립으로 인쇄 매체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및 기술력 전달 등 교육에 힘쓰면서 전 세계 인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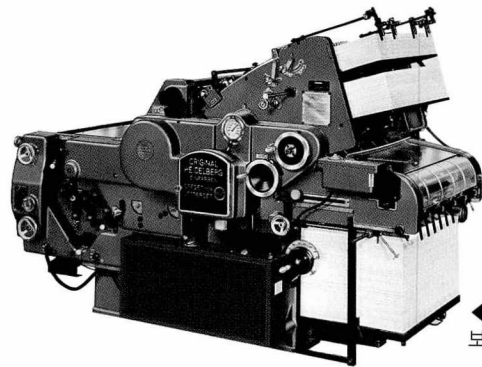
- 1850 : 안드레아 켈이 프랑켄탈에 회사 설립
- 1896 : 하이델베르크로 회사 이전
- 1906 : 'Schnellpressenfabrik AG Heidelberg'로 사명 변경
- 1914 : 하이델베르크 'Tiegel' (압반인쇄기)출시
- 1935 : 오리지널 하이델베르크 실린더(OHZ) 인쇄기 출시
- 1962 : 하이델베르크가 레터프레스에서 오프셋인쇄기로 제조 전환
- 1967 : 'Heidelberger Druckmaschinen Aktiengesellschaft'로 사명 변경
- 1974 : 52x72cm(28") 규격의 스피드마스터 72 V 4도 인쇄기 출시
- 1975 : 72x102cm(40") 규격 스피드마스터 102 ZP 2도 인쇄기 출시
- 1988 : Harris Graphics Corporation(미국·프랑스) 인수
- 1991 : 다이렉트 이미징 기술 도입
- 1995 : 콰이스터 D와 스피드마스터 SM 52 출시
- 1996 : Contitweb, Sheridan Systems, Linotype-Hell 주식 인수
- 1997 : Linotype-Hell AG는 하이델베르크 그룹으로 합병
- 1998 : 프린트미디어 아카데미 건립 착수, 프랑스와 멕시코에 있는 에이전시 인수, 브라질에 새 에이전시 설립, 하이델베르크가 MDAX, Dow Jones STOXX과 Dow Jones EURO STOXX에 포함, 아시아, 아프리카와 스칸디나비아 에이전시 인수, Stahl Group 인수
- 1999 : 코닥 이미징 부서 인수, 하이델베르크 디지털 사업 본부를 로체스터(미국)에 설립, 스위스 랭구스그룹(플렉소 인쇄기)의 지분 30% 인수, 위슬로에 뉴월드로지스틱센터 설립
- 2000 : 하이델베르크에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설립, 신제품 메인스트림 80 신문윤전기 및 넥스프레스 디지털 컬러 인쇄기 출시
- 2001 : 흑백 디지털인쇄기시스템 2천대 이상 공급으로 유동주식수 20% 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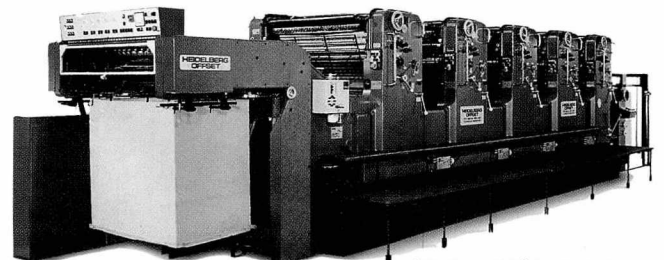
▶Tiegel(압반인쇄기)은 1914년 레인징에 있는 부그라에서 첫 선을 보여 큰 성공을 거뒀다.



▶오리지널 하이델베르크 실린더(OHZ)인쇄기



◀1962년 첫선을 보인 오프셋인쇄기



◀52x72cm(28") 규격의 스피드마스터 72 V 4도 인쇄기

인쇄 전공정에 걸쳐 뛰어난 제품들 생산 공급

하이텔베르그는 인쇄와 관련된 종합 솔루션 제공사로서, 인쇄 전 공정에 걸친 분야에서 각각 핵심적이고 기술면에서 뛰어난 제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크게는 프리프레스, 인쇄, 제책으로 나눌 수 있다.

■ 프리프레스분야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 CtP(판 출력기)

■ 인쇄분야

매엽 오프셋인쇄기, 상업·신문 윤전기, 플렉소·레터프레스, 디지털 인쇄기

■ 제책분야

접지기, 재단기, 중철기, 무선철기, 메일링 시스템

하이텔베르그는 '인쇄 매체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은 하이텔베르그를 이끌어 가는 숨은 원동력이자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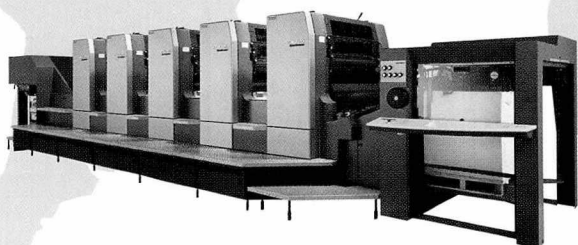
또한 하이텔베르그는 '최신의 뛰어난 기술과 혁신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고객의 사업을 위해, 가장 신뢰할 만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문적 서비스로 구성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의 성공과 이윤 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 직원이 생산 및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하이텔베르그는 '그래픽 아트 산업 분야에서 업계의 확고한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각각 해당분야에서 하이텔베르그의 솔루션 제공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오프셋 인쇄솔루션의 최대 공급사로서 매엽·웹 오프셋 인쇄, 판 이미징,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 등과 전문적 디지털 인쇄솔루션의 최대 공급사로서 흑백과 컬러 인쇄 등 인쇄분야에서 모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제책 솔루션에서의 업계 선두를 위해 단 한 장에서부터 많은 양까지 모든 후가공 분야 서비스와 통합 제책 분야에서의 선두자리 석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쇄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인쇄산업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어 가격, 품질, 속도 및 융통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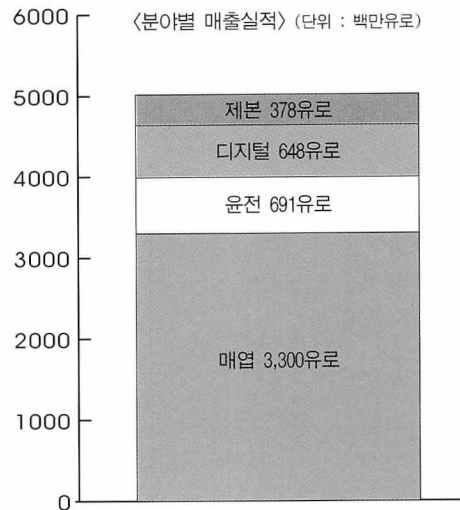


인쇄기(스피드마스터 CD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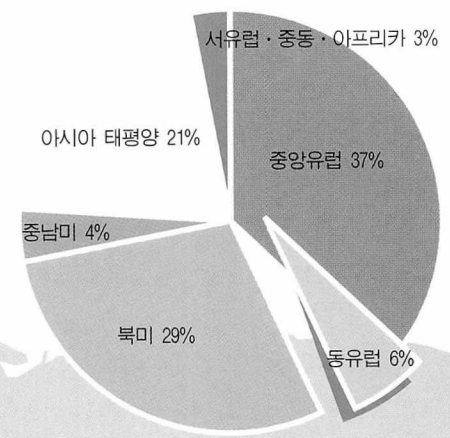
〈연간매출 규모〉

-지년해(2001.4~2002.3) 총매출액 : 약 EURO 5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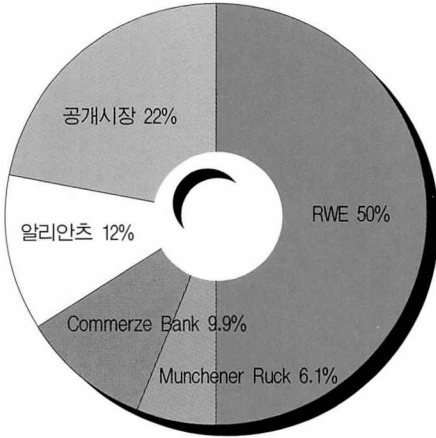
〈분야별 매출실적〉 (단위 : 백만유로)



〈지역별 매출 기여도〉



〈하이델베르크 주식 분포도〉



한국하이델베르크 연혁

- 1953년 코라마상사 설립 (하이델베르크 제품 독점 판매 대리점)
- 1977년 자틴메디슨코리아
- 1985년 12월 한국 비티아이지점
- 1992년 한국비티아이(주)
- 1994년 7월 한국이에이씨그래픽스(주)
- 1996년 EAC graphic Korea Ltd. - EAC 프리프레스사업부 통합
- 1998년 5월 한국하이델베르크(주) (독일 하이델베르크(주) 100% 투자 법인)

새로운 인쇄 기술이 개발되는가 하면 인쇄기와 관련된 설비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첨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쇄와 인쇄 전후 과정들이 하나의 단일 작업 흐름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는 단순히 인쇄기만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 완전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변화, 인쇄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된 훈련과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쇄 미디어 아카데미(Print Media Academy)를 개설했다. 미래의 인쇄 시스템을 생산하는 공급자라면 간단한 설명과 메뉴얼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는 인쇄 미디어 아카데미를 그래픽 아트 산업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정보교육센터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인쇄기장과 기계공들을 위한 인쇄기의 기본적인 훈련과 업그레이드된 훈련에서부터 관리자에 대한 상급 과정까지 다양한 이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 인쇄인들은 하이델베르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하이델베르크 전 분야에 걸쳐 컨설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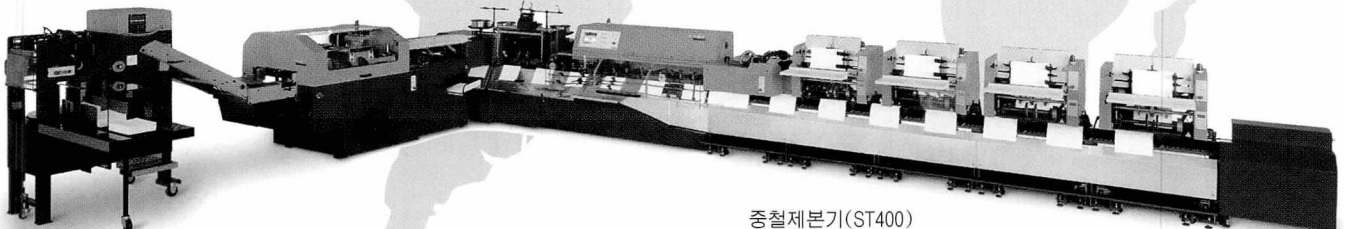
한국하이델베르크는 세계적인 RWE그룹의 일원인 Heidelberg Druckmaschinen AG의 한국 투자 법인으로서 뛰어난 기술력, 넓은 고객 기반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그래픽 아트 종합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한국하이델베르크가 인쇄 및 출판 업계 종합 솔루션 공급사로서 갖는 강점은, 인쇄 전 공정인 프리프레스로부터 인쇄 및 제책,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어떤 사업 환경에도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과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개별 제품을 포함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업체이다.

한국하이델베르크는 우수한 서비스 및 부품 지원 체계와 전문 금융지원체제 운영으로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는 등 하이델베르크 고객의 사업 전반에 따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모기업인 하이델베르크의 세계적 교육 네트워크인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대 고객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하이델베르크는 1953년에 한국 진출 후 국내 인쇄업계와 함께 성장, 현재 8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계속 최상의 생산성을 보장하고, 한국 인쇄 및 출판 업계와 함께 동반자가 돼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하이델베르크의 김범식 대표이사는 무역학 및 국제 경제를 전공한 후, 미국 은행에서의 8년 경험을 바탕으로 1985년부터 하이델베르크사에서 일하고 있다.

〈윤재호부장〉



중철제본기(ST400)